

민주통합 도입 '모바일+현장투표' 문제점 산적

고령층·농어촌 소외, 동원선거 우려

가입자 주소지 확인 안돼 지역 경선 적용 불가능

조직력 앞세운 현역 유리... 대리투표 가능성도

민주통합당이 6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지역구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은 전화와 인터넷 등으로 사전에 모집한 선거인단의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주당의 의지대로 모바일 투표의 도입이 가능한지,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선거인단 신청자의 주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합법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없다. 현행 법상으로는 가입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적 선거가 아닌 지역 선거에서는 모바일 투표의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협조를 얻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더라도 문제점은 산적해 있다. 우선, 전남과 같이 농어촌 인구와 노장년층이 많은 지역은 경선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즉, 청금 합법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없다. 현행 법상으로는 가입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이 외에도 공개투표 또는 대리투표의 우려도 상당하다. 이는 비밀·평등 투표라는 헌법조항을 위배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전남지역의 한 총선 예비후보는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다가 대리투표가 단 한 건이라도 적발되면 경선 불복과 법적 소송이라는 후유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폐해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천 잘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강철규 공천심사위원장 등 공심위원들이 6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첫 번째 공심위원회에서 손을 잡고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습스

민주, 예비후보들에게 던져진 세가지 논술시험

- 1 젊은이들에 꿈과 희망 심어 줄 방안은
- 2 이시대 99% 서민의 아픔 해결책 뭘가
- 3 경제가치와 사람가치 충돌때 어떤 선택

민주통합당은 6일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강철규 공심위(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은 모든 후보자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고 A4 용지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강철규 위원장 주재로 첫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기준 및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모든 예비 후보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답변을 받게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 위원장은 세 가지 질문으로 ▲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줄 실현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 ▲ 이 시대 99% 서민의 아픔을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 경제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가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등을 제시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이 시대의 아픈 서민의 문제를 고민하고, 국민과 함께 어떤 생각을 고민하는지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깊이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임종욱기자 tuim@kwangju.co.kr

2012년 판 낙선운동 시작됐다

참여연대 등 1000여개 단체 9일 총선네트워크 출범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대대적인 유권자 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곧 대규모 연대기구를 발족한다. 6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참여연대 등 전국 10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칭)가 오는 9일 출범식을 열고 활동에 돌입한다. 그동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4대강 사업 반대, 미디어법 개정 저지, 반값 등록금 운동 등에 동참한 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결성하는 연대기구다. 동참한 주요 단체는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다. 광주·전남에서도 우선 지역단위 단체별로 참가할 계획이며, 총선과 대선에 대응해 광주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해 만든 '체인지(Change) 2012 총선·대선 광주연대'도 동참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반값 등록금과 한국판 버핏세, 무상의료 등의 공약 채택을 4·11 총선 후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유권자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이들은 '리멤버 더 them'(Remember Them, 그들을 기억하라)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요구한 의제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이 사이트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동해 과거 총선시민연대가 벌였던 낙선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9일 오전 10시30분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표자회의를 연 뒤 11시30분 출범식을 통해 활동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백혜련·송호창 민주통합 입당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며 사표를 제출한 백혜련(44·여) 전 검사와 '촛불 변호사'로 유명한 송호창(45) 변호사가 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했다. 백 전 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통해 1%를 위한 검찰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대검 중수부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대구지검 검사 재일 시절, 검찰 내부전산망에 "검찰이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들

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검찰을 떠났다. 송 변호사는 이날 "정치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아권의 힘을 모아 낡은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그는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당시 TV토론에 출연



백혜련, 송호창. 해 정부 정책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촛불 변호사'란 별명을 얻었다. 백 전 검사는 사법시험 합격(39회) 이전에 노동운동을 했던 경기 안산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송 변호사는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의왕·과천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천 탈락땀 불출마" 새누리, 자필서약 받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6일 4·11 총선 공천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신청자들로 부터 공천 탈락 때 승복하겠다는 자필서약을 받고 있다. 과거 공천신청 때에도 '당의 결정에 절대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본인이 낙선할 경우 행보를 포함해 본인의 각오를 자필로 적어달라'는 칸이 서약서 하단에 추가됐다. 자필 서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낙선자가 공천에 불복해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인 압박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Le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종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2012년 CUSCUS ART HOUSE

CusCus Family Restaurant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광주 수완점 062-371-0011	광주 신세계점 062-360-1981	광주 상무점 OPEN 예정
------------------------	-------------------------	-------------------

쿠스쿠스: 광주 수완점  
체인점 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